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곽진영

하은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남, 여 고등학생 1,2,3학년 674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자기애 성격검사지 (NPI),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우울증 척도(CES-D)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외현적 자기애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내현적 자기애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권력과 우월성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에 반해 특권의식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지 않아 우울증상에 직·간접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찬미는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기찬미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수치심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웅대성/칭찬과 주목의 욕구, 자기중심성 및 과장된 자기지각 모두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애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우울증상, 자기애, 수치심

*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 교내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은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E-mail : graceha@sookmyung.ac.kr Fax : 02-710-9209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상은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또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는 정신장애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우울증상이란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며(Beck, 1976; Joiner & Metalsky, 1993), 열등감, 무기력, 무가치감, 슬픔 및 상실감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김재엽 등, 2009).

남정자와 조맹제(1996)의 우울증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중증 우울증상이 8.6%인데 반해 청소년의 중증 우울증상 유병율은 14%로 성인이나 노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12-14세 9.83%, 15-18세 14.77%, 19-29세 12.35%로 나타났고 연간 자살 사고 또한 15-18세가 가장 높은 18.4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우울증상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자살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인 우울증상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자기에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asch(1979)는 현대 사회를 자기에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자기에적 스타일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하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에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보았지만 청소년기는 자기

에의 발달이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자기에적 취약성을 극복해야하는 시기이다(Bleiberg, 1994).

임상가들은 DSM-IV(APA, 1994)에 의해 진단할 때 양가적인 자존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에의 진단과는 달리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내적으로는 유사한 역동과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가진 자기에적 병리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에를 두 가지 하위 유형인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하였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Wink, 1991). 이때 외현적 자기에에는 웅대한 자기 표상과 오만한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자기에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타인의 반응에 과민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등의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에를 내현적 자기에라고 한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에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더 역기능적이며 외현적 자기에와는 구별되는 적응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khtar & Thomson, 1982; Wink, 1991; Miller & Campbell, 2008; 박세란, 2005; 이준득, 2005; 조수진, 2007). 또한 한수정(1999)은 자기에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자기관련 인지는 긍정적인 반면에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는 부정적임을 검증하였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자기에의 특징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기에가 지나치게 강한 청소년들은 타인들로부터 관심과 감탄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며 자신에 대해 확신을 발견했을 때는 유쾌한 기분이 들고, 무시당했을 때는 쉽게 상처받는다. 특히 병리적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취약

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비난을 회피하는 방어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치에 스스로 그 기대치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느껴지고 이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원주식, 2006).

Dickinson & Pincuse(2003)의 연구에서는 ‘취약한 자기애자’로 명명된 내현적 자기애자들을 임상면접을 한 결과 회피적 성격 장애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대인관계 상의 스트레스가 보다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회피하고 철수 하는 문제가 심하였다. 결국 내현적 자기애의 ‘민감성-취약성’으로 인해 타인을 살피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성적 불안, 공허감, 불만족감이 커지며 청소년이 우울해 질 수 있다(이원희, 2005).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외현적 자기애 척도 하나만을 사용하여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자기애와 우울증상이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애가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우울, 불안 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자기애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격특질이라고 제시된 바 있다(Carrol 등 1996, Hickman 등, 1996; Raskin & Novacek, 1989; Jackson 등, 1992).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아닌 외현적 자기애, 즉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애만을 연구한 결과이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척도(NPI)를 사용한 권영란(2002)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상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연구자

의 기대와 다른 결과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보고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애 성향자라고 해도 더욱 자기애적 좌절에 취약한 개인들이 있으므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인을 예측하는데 있어 수치심의 영향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자기애와 수치심 간의 연결성은 여러 임상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Kernberg, 1970; Kohut, 1971; Kohut, 1977; Morrison, 1983). 수치심이란 총체적인 자기(self)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정서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자기개념과는 구별되는 정서적 자기 개념이다. 수치심은 자기애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경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Morrison(1989)은 자기애적 성격에 있어서 수치심은 실패와 결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수치심의 정서경험이 유발되며, 수치심이 자기애적 좌절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혜림, 2004). 결국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인 욕구에 대한 취약성과 민감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수치심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살펴본 김영석(2007)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가치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는 수치심은 개인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되도록 만들 수 있고 우울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수치심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사회적으로 철회하고 회피하거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의 경험은 청소년 우울증상의 심화 및 지속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혜림(2004)은 자기애적 성향자가 우울증상을 경험 하는 데는 그 표현양상을 더 역기능적으로 이끄는 또 다른 정서적 취약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주요인이 '민감성-취약성'으로 명명된 것(Wink, 1991)을 보더라도 자기애의 유형과 우울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정서적 취약요인을 가정하는 것이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교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Davis 등(1996)은 자기애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촉진하지만 신경증적 특성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개인의 가치감이 낮아지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개인이 자기애적 성격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그 표현양상을 더 역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수치심과 심리적 장애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왔으나 수치심의 구체적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자기애, 수치심,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애와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별하고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율이 성인 보다 높다는 남정자와 조맹제(1996)의 선행 연구 결과와 연간 자살 사고 또한 15-18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건복지부(2005)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2개의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한 설문지 750부의 설문지 중 736부를 회수하였으며,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67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자기애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 성격 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는 성격 장애로서의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의 기능적인 자기애성 성격특성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는 54개 문항의 강제 선택형의 검사도구인데 이를 Raskin과 Terry(1988)가 요인분석을 통해 4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강유임(2002)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통해 30 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권의식, 권력, 우월성, 자기찬미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30점~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유임(200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였다. 이는 황순택(1994)이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포함시킨 공유 척도와, 다른 성격장애의 공유 특성은 모두 제외하고 자기애적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비공유척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 진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중심성, 웅대성/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기에게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선미(2008)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 $\alpha = .88$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문항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자존감 척도를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Cook(2001)의 IS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구조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 불안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부적절감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을 포함한다. 공허감 영역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을 나타내며, 자기차별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 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 시에 자신을 공격하고자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실수불안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결점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내면화된 수치심 전체 척도는 ‘그런 경우가 없다(0)’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 상실, 수면 장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이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CES-D 진단적 타당성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 년 12월 초부터 시작하여 약 1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인 청소년의 자기애, 매개변인 수치심 및 우울증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기애와 수치심 및 우울증상의 상관관계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매개변인인 수치심, 그리고 종속변인인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은 $p < .01$ 수준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r = -.18, r = -.02, r = -.26, r = -.23, r = -.09$).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은 $p < .01$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r = .54, r = .48, r = .60, r = .23$). 외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은 $p < .01$ 수준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r = -.32, r = -.11, r = -.42, r = -.34, r = -.19$).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은 $p < .01$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r = .56, r = .48, r = .60, r = .23$). 수치심과 우울증상은 $p < .01$ 수준에서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r = .80$).

청소년의 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표 1.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N=67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외현적 자기애 총점	1.00										
2. 특권의식	.80**	1.00									
3. 권력	.90**	.64**	1.00								
4. 우월성	.86**	.63**	.79**	1.00							
5. 자기찬미	.87**	.68**	.66**	.66**	1.00						
6. 내현적자기애 총점	.22**	.36**	.07	.15**	.29**	1.00					
7. 웅대성	.26**	.40**	.10*	.16**	.34**	.94**	1.00				
8. 자기중심성	.08*	.23*	-.03	.03	.15**	.93**	.76**	1.00			
9. 과장된 자기지각	.34**	.35**	.28**	.38**	.32**	.62**	.50**	.49**	1.00		
10. 수치심	-.32**	-.11**	-.42**	-.34**	-.19**	.56**	.48**	.60**	.22**	1.00	
11. 우울증상	-.18**	-.02	-.26**	-.23**	-.09*	.54**	.48**	.60**	.23**	.80**	1.00
평균	59.50	8.35	21.60	10.46	19.01	44.56	21.90	18.66	3.99	46.16	20.96
표준편차	17.90	2.94	7.60	3.59	6.41	19.04	9.72	9.03	2.63	21.77	12.21

* $p < .05$, ** $p < .01$

과는 표 2와 같다.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외현적 자기애 총점

외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

표 4.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N=674)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외현적 자기애	수치심	-.40	25.67***	.11	88.44***
2단계 외현적 자기애	우울증상	-.13	-5.13***	.03	26.27***
3단계 외현적 자기애	우울증상	.06	3.36**	.64	600.98***
수치심		.46	33.75***		

** $p < .01$, *** $p < .001$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외현적자기에 총점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0, p < .001$), 외현적자기에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3,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46, p < .001$), 외현적자기에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13$)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06$). 따라서 수치심은 외현적 자기에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유의성 검증결과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_{ab} = 3.27, p < .001$).

외현적 자기에 하위요인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권력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21, p < .001$), 권력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권력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21, p < .001$), 권력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46, p < .001$), 권력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4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16). 따라서 수치심은 권력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우월성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07, p < .001$), 우월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79,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46, p < .001$), 우월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79$)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15$). 따라서 수치심은 우월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찬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자기찬미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65, p < .001$), 자기찬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7,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45, p < .001$), 자기찬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beta = .12$), 수치심이 자기찬미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었다고 할 수 있다.

특권의식은 매개효과 검증의 두 번째 가정이 위배되어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총점

내현적자기에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N=674)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특권의식	수치심	-.80	21.00 ^{***}	.01	7.98 ^{**}
2단계 특권의식	우울증상	-.11	-.11	.001	.49
3단계 특권의식		.25	2.57 ^{**}	.64	594.42 ^{***}
	수치심	.45	34.46 ^{***}		
1단계 권력	수치심	-1.21	-12.10 ^{***}	.18	146.43 ^{***}
2단계 권력	우울증상	-.41	-6.84 ^{***}	.06	46.76 ^{***}
3단계 권력		.16	3.94 ^{***}	.64	606.01 ^{***}
	수치심	.47	33.01 ^{***}		
1단계 우월성	수치심	-2.07	-9.40 ^{***}	.12	88.34 ^{***}
2단계 우월성	우울증상	-.79	-6.20 ^{***}	.05	38.41 ^{***}
3단계 우월성		.15	1.80 [*]	.64	589.88 ^{***}
	수치심	.46	32.86 ^{***}		
1단계 자기찬미	수치심	-.65	-5.04 ^{***}	.03	38.42 ^{***}
2단계 자기찬미	우울증상	-.17	-2.34 [*]	.008	5.47 [*]
3단계 자기찬미		.12	2.73	.64	593.17 ^{***}
	수치심	.45	34.23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N=674)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총점	수치심	.64	17.41 ^{***}	.31	303.16 ^{***}
2단계 내현적자기애 총점	우울증상	.36	17.35 ^{***}	.31	301.15 ^{***}
3단계 내현적자기애 총점		.09	5.02 ^{***}	.65	619.99 ^{***}
	수치심	.40	26.13 ^{***}		

*** $p < .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내현적자기애 총점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64, p < .001$), 내현적자기애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6,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40, p < .001$), 내현적자기애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 .36$)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 = .09$). 따라서 수치심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유의성 검증결과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_{ab} = 4.86, p < .001$).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웅대성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표 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N=674)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1단계 웅대성	수치심	1.08	14.21***	.23	201.92***
2단계 웅대성	우울증상	.60	14.05***	.23	197.35***
3단계 웅대성	우울증상	.15	4.63***	.65	613.89***
수치심	우울증상	.42	28.22***		
1단계 자기중심성	수치심	1.45	19.39***	.36	375.80***
2단계 자기중심성	우울증상	.76	17.43***	.31	303.80***
3단계 자기중심성	우울증상	.17	4.36***	.65	611.68***
수치심	우울증상	.41	25.15***		
1단계 과장된 자기지각	수치심	1.81	5.82***	.05	33.72***
2단계 과장된 자기지각	우울증상	1.08	6.20***	.05	38.47***
3단계 과장된 자기지각	우울증상	.29	2.52***	.65	594.60***
수치심	우울증상	.44	32.99***		

***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1.08, p<.001$), 웅대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60,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42, p<.001$), 내현적자기애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60$)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15$). 따라서 수치심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중심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 단계에서 자기중심성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1.45, p<.001$), 자기중심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76,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41, p<.001$), 자기중심성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76$)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17$).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중심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된 자가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과장된 자가지각이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1.81, p<.001$), 과장된 자가지각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1.08,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44, p<.001$), 내현적자기애 총점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1.08$)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44$). 따라서 수치심은 과장된 자가지각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67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증상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증상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감소하고,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경험적 연구들과(Dimitris Anastasopoulos, 2007; Aalsma, Lapsley, & Flannery, 2006; Washburn, McMahon, King, Reinecke & Silver, 2004; Barry & Grafeman, 2007),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조수진, 2007; 이원희, 2005; 백진옥,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우울차이를 연구한 김진순(2008)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집단에 비해 더 큰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되어 다시 한 번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는 자기애가 우울, 불안 등과 부

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기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격특질이라고 제언한 바 있는(Raskin & Novack, 1989; Jackson, 1992; Carrol, 199; Hickman, 1996)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즉,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한 결과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특질이 확연히 구분 되어 외현적 자기애는 건강한 성격특질로 내현적 자기애는 심리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높은 성격특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현적 자기애는 우울증상 변량의 3%를 설명하였고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증상의 변량에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보다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준득(2005)의 연구에서 자기애 하위유형에서 우울양상을 비교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 더 우울함을 보고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집단에 비해 더 큰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백진옥(2007)의 결과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자일수록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자들이 갖는 심리적 취약성과 민감성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과 타인의 평가에 집중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Miller & Capmbell(2008)이 자기애의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처럼 부정적이고, 내성적이며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비

교하여 더 심리적 부적응으로 예측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외현적 자기애와는 다르게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자들이 갖는 여러 부적응적 특질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애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현적 자기애는 수치심의 11%를 설명하였고, 내현적 자기애는 수치심의 31%를 설명하였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애 하위유형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를 살펴본 한혜림(2004)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과 연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안들과 같은 맥락으로, 외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낮아지며 내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김진순(200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반응에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자기개념이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며 작아지고 위축되는 수치심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며 우스꽝스럽다는 수치심의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약간의 좌절과 타인의 평가에도 자기 자신의 가치감이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민감성-취약성’을 가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보다 외부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며 부정적 평가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자

아에 대한 비난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은 가치가 없거나 힘없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 대인관계에서 무력하고 작아지고 위축되는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치심이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력과 우월성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과 우월성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권 의식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갖지 않아 우울증상에 직·간접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찬미는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기찬미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수치심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웅대성/칭찬과 주목의 욕구, 자기중심성 및 과장된 자기지각 모두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회귀분석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모두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외현적 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에 비교하여 그 설명력이 극히 낮고 미미하였지만 수치심을 통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건강한 성격특질로 구별되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라도 자기(self)에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정서적 특성을 가진 수치심이 실패와 결점의 정서적인 반응으로써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자신이 느끼는 부적절감을 실패에 초점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 내면화된 수치심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이로써 우울증상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긍정적인 자기애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촉진하지만 그 표현양상을 더 역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함께 있으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촉진 하지만 신경증적 특성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개인의 가치감이 낮아지게 한다는 Davis(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자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데는 그 표현양상을 더 역기능적으로 이끄는 또 다른 정서적 취약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한혜림(2004)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우울증상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라도 자신이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수치심을 경험할 통해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비판과 비난을 회피하며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경청하며 열등감, 자기의심, 수줍음, 취약성, 좌절 민감성 등의 정서적 취약요인을 갖는 병리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

기애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주장성, 사회적 균형, 자기 확신, 잠재적인 리더쉽 및 성취 지향성과 관련되며(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Wink, 1991), 부정적인 측면들은 낮은 자존감, 우울, 부적절감, 불행감, 걱정, 수줍음, 방어성 등과 연관된다는 선행연구들(Watson, Taylor, & Morris, 1987; Mullins & Kopelman, 1988; Cleek & Wink, 1990)과 일치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수치심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수치심이 또 다른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연구 대상과 비슷한 연령 군의 우울증상의 분포와(이희연, 2006; 김서현, 2007)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의 우울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이 비교적 저소득층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상을 표집 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 내용에 근거하였다. 참여자의 자기 통찰과 주관에 의존한 질문지에 의한 결과이므로 주관적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 보고 외에도 행동관찰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구분되는 상반된 성격특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지 않은 선행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 이 두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진 자기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부족하므로 자기애의 외현적 특성과 내현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자기애와 우울증상을 매개하는 정서적 취약요인으로 연구하였지만 자기애의 또 다른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변인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취약요인이 아닌, 무엇이 보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적 매개요인을 찾는 것도 추후 연구들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란 (2002). 자기애적 성향자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서현 (2006). 청소년기 우울장애와 비행의 성차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 (2007). 완벽주의, 수치심,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남석인, 최선아 (2009).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275-308.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부정적 정서, 자존감,

- 능력 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백진옥 (2008).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선미 (2008).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준득 (2005).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연 (2006). 청소년기 우울 장애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73-81.
- 한수정(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한국 교육 심리학회 연구 방법론 워크샵 교재.
- Anastopoulos, D. (2007). The narcissism of depression or the depression of narcissism and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33, 345-362.
- Ashby, J. S., Rice, K. G., & Martin, J. L. (2006). Perfectionism, Shame, and Depression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2), 148-156.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arry, C. T., Grafeman, S. J. (2007). The relations among narcissism self-esteem, and delinquency in a sample of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6, 933.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 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Dickinson, K. A., Pincus, A.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197.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Assessment*, 48, 291-300.
- Flannery-Schroeder, D. C. (2006). Reducing Anxiety

- to Prevent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6), 749-797.
-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Lapsley, D. K. (2007).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schools*, 44(2), 139-156.
- Lasch, C. LC. (1976).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157-178.
- Miller, J. D. & Campbell, K. C.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16(3), 449
- Morrison, A. P. (1983). Shame, the ideal self, and narcissis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 295-318.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einecke, D. (2006). Research Knowledg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Depression Study (TAD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12), 1642-1650
- Thompson, R. J., & Berebaum, H.(2006). Shame Reactions to Everyday dilemma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415-425.
- Watson, P., Hickman, S. E., Morris, R. J. (1996). Self-reported narcissism and shame: Testing the defensive self-esteem and continuum hypothe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14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k, P. & Donahue, K. (1997). The relation between two types of narcissism and boredo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36-140.
- 원 고 접 수 일 : 2010. 09.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1.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0. 12. 24.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narcissism and depression

Jin Young Kwak

Eun Hye Ha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narcissism and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674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s 1 through 3 in kyung gi province. They were assessed by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depression and 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However, adolescents' depression and c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cond, both adolescents' overt and covert narcissism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depression. However,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adolescents' depression was relatively bigger than overt narcissism. Third, both adolescents' overt and covert narcissism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shame. However,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shame was relatively bigger than overt narcissism. Fourth, sham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overt and covert narcissism. Among adolescents' over narcissism, shame mediated partly superiority and authority to depression. However, shame did not mediated entitlement and depression. And shame mediated comple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raise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covert narcissism, exaggerated self-perception, selft-greatness, and egocentrism are mediated completely by sham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hame was proved to have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adolescents' narcissism and depression.

Key words : Narcissism, Shame, Depression